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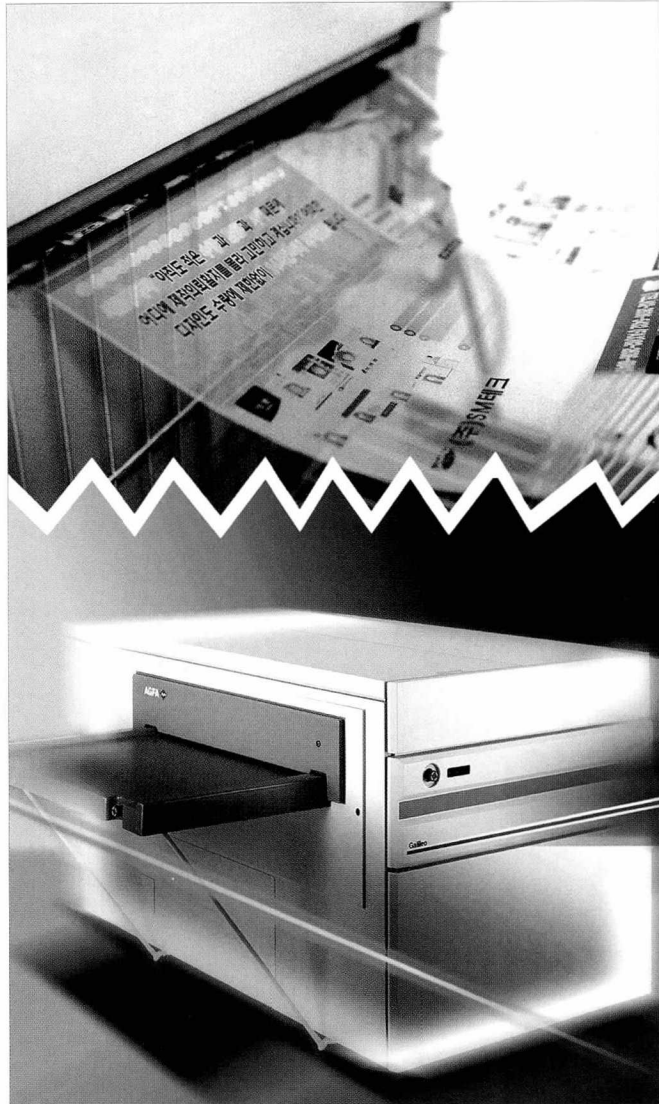
CTF 울고 CTP 웃는다

지난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업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 2004년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한 건 사실이나, 200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쇄/제판 산업도 하청 산업의 특성상 경기 회복의 영향을 조금 늦게 받기는 하나 2003년보다는 나은 사업 환경을 기대해 본다.

프리프레스업계를 전망하기에 앞서 그 동안 프리프레스, 프레스, 포스트프레스 등이 분리된 산업 구조 속에서 프리프레스업계의 자체 전망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CTP의 보급과 더불어 프리프레스업계는 인쇄업계가 변화해 가는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전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쇄업계나 프리프레스업계 모두는 저성장 및 과당경쟁의 사업 환경 속에서 차별화 및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각자의 생존 및 사업 확대를 보장 해줄 수 있는 방안이며, 차별화 · 생산성 향상의 화두는 우리 업계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 속에서 프리프레스 대표 아이템인 CTP와 CTF를 중심으로 한 Output System과 Input System인 스캐너의 2004년도 예상을 전망하여 보도록 하겠다.

먼저 CTP를 살펴보면, CTP는 인쇄 프로세스의 혁신



적인 개선 방안으로 탄생한 제품으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총 판재 사용량 중에서 CTP 판재의 사용량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보급이 확산되어 있으나, 국내에서의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수년 간 CTP로의 전환이 당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TP의 경우는 CTF와는 달리 시장 진입에 있어 아주 느린 속도로 도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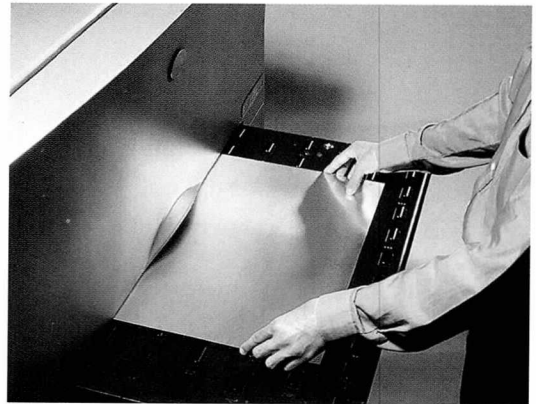
이에 대한 이유로는 고가의 장비, 고가의 원재료, 서체 비용,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재투자에 대한 여력 부족 등 여러 가지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제판이 인쇄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제판과 인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 부족 및 통합 시에는 모든 시설을 재투자해야 하는 상황 또한 쉽게 CTP를 선택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변화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변화가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또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회 요소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음도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의 CTP 설치 실적은 2003년 말까지 총 1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2년 말까지 60여 대가 설치된 것에 비하면 2003년에 40여대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실적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세이며 국내도 본격적인 CTP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CTP 시스템의 초기 시장 도입 단계에서 올 수 있는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이 자연 발생적인 Need(요구)에 비해 훨씬 강하게 작용하였을 수도 있으나, 2004년부터는 먼저 CTP를 도입한 회사들로부터의 프로세스 단축 및 사용 성공 사례가 자연스레 시장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CTP 출력요구는 증가할 것이며 각사의 업무 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선택함으로써 CTP 시장 변화의 중심축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자연스레 전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CTF의 경우는 1995년 이후, 근 10여년간 프리프레스업계의 중심에 있었으나 시장 자체의 포화 상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한 가격 경쟁의 심화 및 자금 회수를 취약으로 인해 이익 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있으며, 2003년의 장비 보급 실적은 2002년 대비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도 전망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2003년처럼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CTF 시장은 신규수요 보다는 대체수요 시장으로 이미 전환되어 있어 지속적인 수요가 바탕이 되어 있고, 제판과 인쇄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한 사업 환경 또한 지속적인



CTF 시장의 밀반침이 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좋은 장비의 선호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CTF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CTF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나, CTF와 CTP의 병행 기간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길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CTP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크게 대두되는 화제이자 점차 수익구조가 취약해 지는 CTF 시스템에서도 원가 절감 차원에서 교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정에는 크게 편집(Data) 및 컬러 교정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교정의 경우는 ROOM(Rip Once Output Many) 프루핑의 기능이 부각된다. 또한 프리프레스업계에서 오랜 과제였던 디지털 교정에서의 컬러 교정은 그동안 인쇄 교정에 의존했던 부분이 CMS 기능의 강화로 플로터교정으로 조금씩 대체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기존의 교정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교정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그동안 제판사업 내에서 하나의 독립 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스캔 작업에 있어서도 단독 공정으로서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잃어가고 점차 디지털 데이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력의 한 분야로서의 토탈 서비스의 개념으로 변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가 구조로 스캔 작업을 운용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평판방식(Flatbed)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축소 및 공간활용의 극대화 등의 부대 효과도 기할 수 있어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평판방식 스캐너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04년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와 더불어 생존을 위한 차별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출력실과 인쇄업이 통합되어 가는 그 시작으로 출력실과 인쇄사간의 전략적 제휴 등의 통합 과정이 조심스레 예상된다.



〈김동길 · 솔루윈 상무이사〉